

순창장류축제 ‘지역축제 대상’

세계소스박람회와 콜라보레이션 시도·혁신적인 변화 가능성 동시 보여줘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순창장류축제가 순창세계소스박람회와 함께 2016. 도전! 자랑스러운 지역축제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6 축제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도전한국인운동협의회와 도전한국인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상은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열린 2,000여개 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활용해 산업화를 이끈 지역축제를 선정해 홍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기를 이끌어 내고자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순창 장류축제를 비롯해 부

산동래읍성역사축제 등 12개 축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전경연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1층에서 열렸으며 순창군측은 신동원 부군수와 이남 장류축제위원장이 수상했다. 순창장류축제는 그동안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될 만큼 독특하고 개성 있는 콘텐츠를 자랑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계소스박람회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여 순창장류의 문화적 정체성과 혁신적인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은 물론, 지역민의 도전정신과 자긍심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장류축제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순창세계소스박람회와 함께 장류와 소스의 결합을 통해 전통장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지역축제로서 산업축제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순창장류축제가 우수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은 제2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광주휴게소에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직영판매장을 개설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임실N치즈피자 직영판매장 영업 ‘개시’

제2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광주휴게소서… 치즈·요구르트·피자 등 61개 품목 판매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이사장 심 민)은 제2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광주휴게소(상·하행)에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직영판매장을 개설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통행량 분산을 위해 신설됐으며, 주요 이용객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로 예측되고 있다. 사업단은 원주-순천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운영 경험을 살려 지난 9월 휴게소 운영업체인 (주)ECMD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휴게소 직영판매장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도권 소비자 공략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직영 유통망 확충은 물론 관내 목장형 유가공업체의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영판매장은 목장형 유가공공장, 임실치즈농협, 임실N치즈피자에서 생산한 치즈, 요구르트, 피자 등 61개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해 연간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민 이사장은 “광주휴게소 직영판매장 운영을 통해 임실N치즈를 수도권 및 전국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대한민국의 치즈 대표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가공업체의 매출 증대를 통해 임실치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상·하행) 직영 판매장 운영을 통해 연간 12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원장 진재교)이 제13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서울시 종로소제)에서 지난 10일 열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는 ‘전봉준 장군 생가터의 역사적 의의와 활용 및 보존 방안’을 주제로 김상호 고창군 부군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장남기 고문,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진운식 부이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지역은 1855년 12월 3일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인 농두장군 전봉준이 출생한 곳이며 동학의 대접주 순화중 포의 주 활동무대도 많은 농민군 지도자를 배출했다. 1894년 3월 20일(음력) 무장에서 섰던 포고문에는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이유와 목적, 투쟁대상과 목표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봉준장군 생가터의 활용 및 보존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전봉준장군 생가 터가



가지는 역사적, 현재적 의의를 확인함과 동시에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상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총북대 신영우 명예교수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의 고창지역 동지들’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 ‘고창지역 주요 농민군지도자 연구-송문수의 활동 중심으로’는 조재곤(서강대)의 발표와 정승교(서울대)의 토론, 제2주제 ‘전봉준 생가터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원도연(원광대)의 발표와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제3주제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지역적 연계-전봉준을 중심으로’는 배항섭(성균관대)의 발표와 왕현종(연세대)의 토론, 제4주제 ‘영학당의 조직과 종교적 의의’는 이영호(인하대)의 발표와 김태웅(서울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농두장군 전봉준의 고향인 고창군에서는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도록 매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추수감사제·군수 표창 시상 이뤄져

고창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조병률)가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자긍심 함양을 위해 ‘제18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을 개최했다. 11일 고창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13개 농업인 단체가 협력해 구성된 고창군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에서 마련했으며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가림사화단체장과 농업인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이날 농업·농촌의 번영과 올해 종년농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와 함께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농업인에 대한 군수 표창 시상식이 이뤄졌다. 아울러 11월 11일 ‘가래떡 데이’ 행사로 11m 길이의 삼색 가래떡 커팅식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으며 부대행사로 우리 쌀과 땅콩 품종 및 가공제품 전시, 국내육성 고구마 품종별 시식회, 읍면 특색요리

전시 및 시식회, 치유음식 전시회, 읍면 명품농산물 및 새소득작목 전시회, 국내외 농특산물 비교전 시, 인절미 떡메치기 체험, 우리쌀 뽕튀기 무료 나눔행사 등 다채롭고 특색 있는 행사로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읍면별 민속경기와 장기자랑 등 화합행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힘든 영농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박우정 군수는 “종년농사를 이루어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농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발굴에 힘쓰고 군민의 땀과 열정이 보답 받는 고창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농업현장을 이끌어 달라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산학관 협력 협약 체결

지역일꾼 양성·일자리 창출 등

임실군은 지난 11일 심민 군수, 일진제강(주)(대표 김준식, 허진규), 오수고등학교(교장 김동남) 3개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산학관 협력 협약식’을 군수실에서 가졌다. 군은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산학관 협력으로 지역일꾼 양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초부터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성과를 맺게 됐다. 일진제강(주)은 지난 2010년 임실농공단지에 자리 잡은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기대되는 유망기업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오수고등학교는 지난 1954년 설립해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명칭육성사업에 지정돼 직업의식 교육, 산업체 현장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류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를 겸비한 현장 기술인력과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계분야 기능인력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발굴과 인재양성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산학관 상호협력력을 통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의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제7대 순창군의의회(의장 김종섭)는 지난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회 순창군의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20일까지 40일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동의안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하여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창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의 국정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제7대 순창군의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순창발전을 위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에게 필요하고 군민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

산 심의”를 강조했다. 이날, 올해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손종식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초선.47세)을 선임하였다. 한편 손 위원장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군민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감사 방향에 대하여 피력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봉주 위원장은 “최근 국정 혼란과 더불어 나라 값의 폭락으로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사업을 비롯한 주민 복지증진에 역량을 두고 예산심사를 진행 하겠다”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향을 전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도시농업



순창경찰, ‘나·너·울’ 2탄 진행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10일 “나.너.울” Project 2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너.울Project”란, “나.너.우리”의 줄임말로 학생(학교박정소년), 학교전담경찰관이 “우리”라느나 공동체를 이루어,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을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여성청소년계 자체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날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은 읍내 어두운 방거리와 학생들 밀집장소인 일품공원등을 돌며, 학생 대상 “집에 일찍 귀가하기, 술·담배 하지 않기” 등을 교양하며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고 편의점·슈퍼마켓·술집등을 돌며 학생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관내 PC방, 노래연습장등을 찾아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탕등을 나누어 주고, 연령 제한 게임과 노래연습장 출입가능 시간등에 대해 교양하며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유기질비료 사업신청

남원시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17년도 유기질비료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이고, 지원조건으로는 포당(20kg) 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각각 1,400원, 1,600원, 1,700원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남원시는 2016년에 8천여 농가에게 3만 2,800톤(164만포)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2,666백만원을 지원하여 농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기초생활 수급자 구강교육

임실군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의치(틀니)사업을 지원하고 완료 후 사후관리를 위해 구강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의치사업’은 치아가 없거나 일부 남아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진진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내 치과와 연계해 틀니시술을 지원한 뒤 5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군 보건의료원 사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바른 틀니사용과 보관법, 일대일 맞춤 치솔질 교육을 비롯해 음식물 섭취 체형교육으로 이해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틀니가 없을 때는 음식 섭취가 힘들고 소화도 잘 안됐다”며 “틀니 사용 후에는 음식 섭취가 매우 편하고 외모 변화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틀니 시술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구강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